

#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The Social meaning and the Adaptable Effects on Marriage Life of the  
Honsu: A Social Exchange View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정용선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경연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득성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 : Yong Sun, Chung*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 : Kyong Yeo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Deuk Sung, Kim*

##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explorato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onsu trend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Honsu, marriage exchange resources and marital satisfaction from general group and also explore the differences in Honsu expenditure between the general group and the aimed group. The explanato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social meaning of the Honsu as a 'productive exchange resources' using Emerson's exchange network theory.

\* 본 논문은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소과제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e data was collected from 800 men and women of general group and 72 men and women of aimed group within 5 years of marital durat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metho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from the general group were as follows :  
in general group

1. The bridegroom group expended more Honsu than bride group. Bridegroom's primary expenditure item was house expenditure, and bride's primary one was newlywed life goods.

2. The bridegroom's Honsu were influenced positively by parents' SES, bridegroom & bride's education level and bride's parents' SES.

Bride's Honsu were influenced positively by parents' SES and bridegroom & bride's education level.

3. Bridegroom's marital satisfaction were influenced positively by bride's marriage need, bridegroom's marriage need, bride's physical attraction and bridegroom & bride's education level.

Bride's marital satisfaction were influenced positively by bride's marriage need, bridegroom's physical attraction, bridegroom & bride's education level, bridegroom's marriage need, bridegroom's future possibilities and bridegroom's Honsu.

4. The social meaning of the Honsu was a 'productive exchange resource'.

Major findings from the aimed were as follows

1. The bridegrooms of aimed group expended more housing expenditure and also Honsu than the brides but ther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nsu expenditure between the bridegrooms and the brides of aimed group.

2. The bridegrooms of aimed group expended about 3 times more money for wedding present for spouse and about 1.2 times more for Honsu than the bridegrooms of general group. The bride of aimed group expended about 4.6 times more money for wedding present for spouse's family, about 2 times more for newlywed life goods, about 4 times more for housing expenditure and about 3 times more for total Honsu than the brides of general group.

## I. 서 론

결혼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남·녀 간의 성적·경제적 결합"(Ember & Ember, 1993, 166)인 만큼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형태의 경제적 교환이 결혼에 전후하여 수반된다. 결혼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총칭하는 용어로 婚需가 있는데 이는 "혼인에 드는 물품 및 비용"(한국어대사전, 1976, 1826)으로 보통 "결혼에 드는 비용"(한국어대사전, 1976, 1826)

을 의미하는 婚費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신부는 물론 신랑도 결혼에 임해 당연히 혼수를 장만하게 된다. 향간에서는 혼수를 신부가 신랑가족에게 "예물로 주는 비단"인 禮緞(한국어대사전, 1976, 181)과 종종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갑오경장 이전 까지 신부측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주된 항목이 예단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시기의 신랑측 주된 혼비 지출항목은 納幣<sup>1)</sup>였는데(박혜인, 1991) 이와 같이 조선조 말기의 혼

1) "혼인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한국어대사전, 1976, 391)을 의미하며 納徵이라고도 함.

수가 소박했던 이유중 하나는 결혼과 함께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가는 당시의 혼인거주방식인 夫居制<sup>2)</sup>가 많은 혼수품을 필요로 하지 않게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 근대화에 따라 핵가족화 경향이 확산되고 결혼후 신혼부부가 독립된 세대를 형성하는 '新居制'가 일반화되자 종래의 예단이나 납폐 외에 신혼가구 성립을 위한 주택비, 신혼살림비 등이 포함되어 혼수규모의 전반적 증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모란(1994)은 혼수증대 현상의 구체적 시기를 60년대 이후로 제시하고 있고 1975년도에 보사부에서 혼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준혼수'를 제정 권장하였던 것으로 보아(이행숙, 1982) 대략 60-70년대에 소위 말하는 호화혼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호화혼수 양상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박숙자, 1987, 13)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대중매체(국민경제리뷰, 1994; 정재영, 1990, 이광자, 1990)에 간간히 등장하는 혼수관련 기사내용들 및 혼수관련 선행연구들(김경희, 1983; 김모란, 1994; 박민자, 1991; 박숙자, 1991; 윤희숙, 1991; 이행숙, 1982; 장은영, 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3)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혼수문제가 호화혼수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신부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랑 신부간의 혼수비 격차로 인해 신부 및 신부가족이 겪는 부담(국민경제리뷰, 1994; 이광자, 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3)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혼수관련연구 대다수가 (김경희, 1983; 김모란, 1994; 박민자, 1991; 박숙자, 1991; 장은영,

1990) 신부를 통해 신랑혼수를 측정함으로써 부정확 기억, 누락기억 또는 왜곡기억 등에 의한 측정편과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일부연구(김경희, 1983; 김모란, 1994;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3)는 신랑의 주된 지출항목인 주택비<sup>3)</sup>를 신랑혼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부가 신랑보다 과다한 혼수를 한다는 선행연구의 보고는 현실과 괴리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모란(1994)의 연구에서 주택비를 포함시킨 '총혼비'<sup>4)</sup>의 경우 신랑이 신부보다 두배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추진중앙위원회<sup>5)</sup>의 1993년도 자료 역시 주택비를 신랑혼수에 가산하면 신부혼수의 거의 두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측정편파라는 방법론적 문제와 함께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한계는 혼수라는 사회적 관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한국사회에서 혼수가 갖는 기능 즉 혼수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과연 혼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데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중 유일하게 이론적 맥락 내에서 혼수의 사회적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혼수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김모란(1994)은 교환이론가 Homans의 분배정의 명제를 적용하여 신부혼수의 사회적 의미를 '신랑값'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수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기인한 '자본제적 가부장제'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 '자본제적 가부장제'의 특성은 "이윤추구적 자본과 남성의 현실적 이해가 맞물려"(김모란, 1994, 131) 여성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부

- 2) 결혼후 신혼부부의 거주지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거주방식이 결정되는데 가족제도가 직계 가족이었던 조선조 말기까지의 한국의 혼인거주 방식은 夫居制였다(박숙자, 1987). 혼인거주방식에는 이 외에 新居制, 婦居制, 兩居制 등이 있다(Ember & Ember, 1993).
- 3) 김경희(1983)는 신랑의 주택마련 비율이 약95%라고 보고하였고 김모란(1994)에 의하면 신랑의 주택마련 비율이 84.8%로 신랑의 주 지출항목은 주택비라고 하였다.
- 4) 김모란(1994)은 '혼수'를 예물, 예단, 신혼살림비로 한정하였고 주택비를 비롯하여 예식비, 기타 비용이 포함된 비용을 '총혼비'라 명명하였는데 본 논문에서의 '혼수'개념에 해당되는 개념은 '총혼비'이므로, 이후부터 김모란의 논문을 논할 경우 '총혼비'를 '혼수'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 5)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3)의 보고서는 주택비를 신랑 신부간 분담율을 밝히지 않은채 제시하고 있는데 신랑의 주택마련비율이 85-95%(김경희, 1983; 김모란, 1994)임을 감안하여 신랑혼수에 포함시켰다.

는 신랑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사는 댓가로 물질적 재화 즉 혼수를 '신랑값'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지만 자료의 분석결과와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즉 신랑혼수가 신부혼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랑 보다 신부의 혼수지출이 과다하다는 혼수문제의 규정부터 재고하게 하며 신부의 혼수가 신랑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대한 댓가라면 신랑은 신부의 어떤 능력에 대한 댓가로 신부 보다 더 많은 혼수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재고할 때,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혼수문제 즉 신랑보다 과다한 신부혼수 및 호화혼수는 일부계층에 국한된 문제이며 일반적 혼수관행은 신랑이 신부보다 혼수비 지출이 큰 불균등적 관행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얻을수 있다. 혼수문제를 거론하는 대중매체(국민경제리뷰, 1994; 정재영, 1990)나 학자들(박민자, 1991; , 윤형숙, 1991; 장은영, 1990) 역시 이를 일부 특수계층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박숙자(1991)는 혼인양상이 계층에 따라 다를것이므로 계층별로 구분된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혼수를 계층별로 연구할 경우 전체사회를 대상으로 한 혼수의 보편적 의미를 구할수 없다. 따라서 현 한국사회에서의 혼수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 즉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되며 혼수문제를 파악키 위해서는 특수계층으로 지칭되는 표적집단<sup>6)</sup>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반집단의 경우 혼수관행은 신랑의 주 부담 항목이 주택비이며 신부의 주 부담 항목은 신혼살림비로 신랑이 신부보다 지출이 큰 불균등적 관행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김모란, 1994; 박숙자, 1991;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Emerson(1969, 1972)의 '생산적교환' 상황 모형은 일반집단의 혼수의 의미를 설명하는 적절한 설명틀로 간주되는데 즉 혼수를 '협동적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이 공동 출자하여 연합적 이익을 산출

한 뒤 공동 소비하는 '생산적 교환자원'으로 설명케 한다. 다음으로 표적집단의 경우 신랑보다 과중한 신부의 혼수가 '신랑값'(김모란, 1994)의 기능을 하는 집단 즉 혼수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계층 이동이 허용되는 개방사회에서의 계층 상승 욕구는 종종 유망직종 신랑과의 결혼을 통해 달성되는데(Ember & Ember, 1993) 이때 신부는 신분 상승 보장의 댓가로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 댓가를 치르게 된다. 이는 '협동적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간의 거래를 미리 계약하는 일종의 정략결혼이며 혼수문제는 이러한 정략결혼에서 발생되므로(박숙자, 1991) 신랑이 유망직종인 표적집단에 대한 혼수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지적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반집단과 표적집단에 대한 2원적 접근을 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있어서의 혼수실태 파악 및 혼수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아울러 일부 특정계층에서의 혼수문제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혼수의 의미를 "한쌍의 남녀간의 결혼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총비용"이라고 정의하여 자료를 신랑 및 신부집단<sup>7)</sup> 양측으로 부터 수집하였으며 표본을 일반집단과 표적집단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첫째, 탐색적 수준에서 연도별 혼수실태, 혼수와 결혼교환자원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 둘째, 설명적 목적에서 Emerson(1969, 1972)의 교환망 이론 중 교환상황 모형에 따라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혼수의 사회적 기능이 '생산적교환자원'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혼수실태를 일반집단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집단의 혼수실태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6) 문맥상 '특수집단'이라고 지칭함이 적합하나 용어가 주는 강한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표적집단'으로 지칭기로 한다.

7) 이후 본 논문에서는 문맥상의 원활함을 위하여 '신랑집단' 및 '신부집단'을 '신랑' 및 '신부'로 축약하여 기술코자 한다.

- 연구문제 1-1. 신랑 신부의 혼수 지출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신랑 및 신부의 혼수에 대한 양측 결혼교환자원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신랑 및 신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측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4. 혼수는 '생산적교환자원'인가?  
 연구문제 2. 표적집단 신랑 신부의 혼수실태는 일반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의 신랑 신부 간 혼수 항목별 분담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신랑과 신부의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 혼수 항목별 지출실태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의 거래적 특성과 혼수

사회관계의 기본형식인 친족관계는 혈연관계(blood relationship)와 인척관계(relationship in-law)로 대별된다. 혈연관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로 부모-자녀관계가 대표적 유형인데 비해 인척관계는 법률적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부수적 관계로 부부관계가 그 대표적 유형이다. 다수의 인류학자는 결혼의 역사가 자산의 소유 및 행사에 있어서 여성의 법적 무력함과 이로 인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법적, 경제적인존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Ember.C.R.& Ember.M, 1993). 실질적으로 근대 이전 사회에서의 결혼은 낭만적 사랑보다는 경제적 거래에 근거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적 관계(Goodenough, 1970)였던 것이다. “남녀 사이에서 앞으로 출생할 자녀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일종의 관습적 거래”(Gough, 1959), “일종의 거래 및 그 결과로서의 계약”(Goodenough, 1970)등 결혼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결혼이 제반 권리의 이전 혹은 흐름을 수반함을 확인시켜 준다. 결혼의 계약적 거래적 속성을 명료히 해주는 물자이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부값과 지참금이 있다. 신부값은 신

랑집단으로 이전되는 신부의 출산력, 노동력, 성적 가치에 대한 보상적 의미로 신랑친족이 신부친족에게 지불하는 가치재로서, 생계유지에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여성의 지위는 낮은 계층 분화가 덜 된 사회에서 발생한다(전경수, 1981). 지참금은 결혼시 신부가 신랑에게 가져가는 재화나 화폐로, 생계활동에서 여성의 기여도가 낮은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혼인해 나가는 여자에게 본래 자기 친족의 자산에 대해 지니는 권리만큼의 몫을 지불하는 일종의 상속재인 것이다(Ember.C.R. & Ember.M, 1993). 결혼과 관련하여 거래되는 자산에는 이외에 노동봉사, 여성교환, 간접지참금 등이 있는데 노동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는 신랑 신부의 부모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이들 거래자산이 결혼 당사자 혼자 힘으로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결혼에서는 당연히 자산지불자의 의견에 따라 결혼이 결정되며 신랑 신부는 형식적 동의만을 할 뿐이다. 박혜인(1990)에 의하면 한국 전통사회의 일반적 혼속은 조선조 후반까지 신랑이 신부집에 장가 드는 壻留婦家婚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결혼과 관련된 거래형태도 주로 신랑의 처가에 대한 노동봉사였다. 그러나 초기에 신랑의 노동봉사가 주었던 거래형태가 후기에는 신부집의 부담이 커지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니 명절 및 시부모 생일에 음식 및 정성옷을 보내는 등의 부담이 그것이다.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인식을 치른 후 신부를 집으로 데려 오는 親迎禮가 일반에 보급된 것은 불과 200년도 안되는 근세의 일이었으며(김용숙, 1989) 친영례와 함께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적 성격의 재화를 보내는 납폐 및 신부의 생활용품 및 예단이 일반적 혼수품목이 되었다(박숙자, 1987).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시작된 근대화와 함께 결혼풍습이 바뀌면서 혼수규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 이후 혼수의 질과 량에서의 증가가 뚜렷해 졌다(김모란, 1994).

이와 같이 전통사회에서의 혼수 중 신부값, 노동봉사 및 여성교환은 교환재의 기능을 했고 지참금과 간접지참금은 상속재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결혼이 남녀 간

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의 혼수의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결혼과 함께 신혼가구가 독립해 나가기 때문에 신혼가구 성립을 위한 지출(신혼살림 마련비, 주택 마련비)을 비롯하여 의례적 지출(약혼식비, 결혼식비, 신혼여행비 등) 및 예물적 지출(배우자에게 물 및 배우자가족 예물)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혼수의 사회적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 2. 사회교환이론과 혼수

사회교환이론은 경제학, 심리학 및 인류사회학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여 인간관계를 간결하면서도 폭넓게 설명하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로 하려는 동기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일단의 교환이며(Homans, 1961)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행위자가 호혜적 보상적 행동체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진행된다고 설명한다(Blau, 1964). Homans(1961)와 Blau(1964)가 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 각각을 한 단위로 간주한데 비해 Emerson은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교환관계 그 자체를 분석단위로 삼아 행위자 각각의 개인적 동기나 가치가 아닌 행위자 간에 교환되는 보상의 비율에 주목함으로써 관계의 구조 및 기본과정을 밝히려 시도하였다(김진균, 1993). Emerson(1969, 1972)은 교환자원 및 교환방식의 이해가 교환상황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며, 교환상황은 '분배적교환'(distributive exchange)과 '생산적교환'(productive exchange)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분배적교환'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교환하는 자원은 단일유형의 동일가치적 자원이며 그 교환방식은 상대방 자원과의 직접적 거래이고, 관계의 성격은 자원의 상대적 교환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일련의 거래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5단위씩의 자원을 주고 받았다면 교환비율은  $5/5=1$ 이 되어 이 관계는 동등적 관계로 규정되지만 자원의 주고 받음에서 차이가 나면 비동등적 관계로 간주된다. 한편 '생산적교환' 상황에서

교환되는 자원은 행위자 각각의 독립적 자원이며, 그 교환방식은 공동 출자 후 상대방의 자원과 결합하여 산출된 연합산물(joint product)을 공동소비하거나 관계 밖의 행위자가 가진 다른 자원과 교환하는 것이다(J.F.Stolte, 1987). Emerson에 의하면 행위자 각각의 자원은 독립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지만 상대방의 자원과 상호작용적으로 결합할 때 가치있는 연합산물이 산출되므로 '생산적교환'에서는 행위자의 자원들이 가능한 서로 다를 것이 전제된다. Emerson(1969: 395)이 제시한 정구게임의 예에 의하면, 행위자 A의 자원단위 '서브'와 행위자 B의 '리시브'가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그 하나만으로는 재미를 느낄수 없지만 이 독립적 자원들이 공동 출자되어 상호 결합되면 보다 가치있는(이 경우는 재미있는) 연합산물인 '게임'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생산적교환'관계의 성격은 연합산물의 배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이득에 의해 결정된다. Emerson에 의하면 '생산적교환'상황에서의 배분 원칙은 공평성기준(norm of equity)인데 이 기준은 출자한 자원가치에 따라 연합산물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더 많은 연합산물을 배당받은 행위자는 상대방에 대해 권력이득을 갖게되는데 Emerson의 관점에서 관계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권력이득을 갖는다는 것은 불균형적 교환관계를 의미한다(Cook.K.S, 1987). 그러나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화(balancing)'과정을 통해 행위자간 상호 충족정도가 동일한 균형적 관계로 진행되므로 관계는 해체되지 않고 지속된다. 특히 Emerson(1976)은 교환관계의 연속적 변화적 속성에 주목하여 장기간의 관계를 분석단위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교환관계는 장기간 변화하며 지속되는 연속적인 것이므로 한 시점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관계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Emerson이 제시한 교환 원리 중 첫째, 교환자원 및 교환방식이 교환상황 따라 다르다는 것과 둘째, 분석단위로 채택되는 교환관계는 장기간의 관계여야 한다는 두가지를 일반집단의 혼수 연구 전개의 근거로 삼았다. 이들 원리가 적용된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결혼을 '생산적교

환'상황이라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결혼결정시기 부터 신혼 5년까지를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석단위로 채택하였다. 결혼을 '생산적교환'으로 본 근거는 부부의 '협동적' 관계특성이다. 학자들은 부부가 사회적 법적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의 기본단위이며, 같은 집에 살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어 협력하는 共住的(이효재, 1983) 同財의 공동체(유영주, 1984)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신혼 5년까지의 결혼관계는 관계적 특성에 따라 다시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생산적교환'상황인 결혼과정에서 거래되는 혼수가 '생산적 교환재'임을 입증할 가설을 설정키 위해 각 단계에서의 교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과정의 첫번째 단계는 유망한 몇명의 결혼대상자들 중 한명을 선택하는 '결혼결정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수준, 직업 등 객관적 자원 뿐 아니라 대상의 매력 등 주관적 지각자원 등 장차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결혼교환자원들을 놓고 결혼대상자와 자신간에 신중히 비교 검토하게 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상대방과 자신의 교환이 상호간 평형을 이룬다고 지각될 때 교환관계가 성립되므로 결혼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결혼교환자원에서 두 사람이 평형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 평형을 이루었다는 것이 모든 결혼교환자원이 동가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의 평형을 의미한다.

두번째 단계는 결혼결정 후 생활의 물리적 근거인 신혼가정을 마련하는 '결혼준비단계'이다. 결혼 결정과 함께 '탐색적관계'에서 '협동적관계'가 된 신랑 신부는 가치있는 연합산물을<sup>8)</sup> 산출할 수 있도록 각자의 독립적 자원을 출자하는데, 이때 공동 출자되는 자원이 혼수이며 이는 '협동적관계'를 형성한 후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생산적교환재'의 성격을 갖는다. 혼수에는 의례비, 예물비 및 신혼가구설립비가 포함되는데 이들 중 의례비와 예물비는 결혼생활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적 교환재로 간

주된다. '생산적교환'에서 연합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한 요인은 출자된 자원단위의 질이다(Stolte, 1987). 즉 출자된 자원단위가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가치있는 연합산물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관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가능한 최선의 자원을 출자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출자되는 자원단위의 가치는 출자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르므로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 중 교육수준 및 직업이 특히 혼수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공정성이라는 교환원리에 의해 관계내의 행위자들은 상대방 자원단위의 가치가 자신과 동등하기를 기대하며 자신 역시 가치면에서 상대방의 자원과 비슷한 수준의 자원을 출자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즉 신랑 신부는 상호간 혼수규모가 비슷하게 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신랑이 마련하는 주택의 규모에 맞추어 가재도구를 장만하겠다는 예비신부들의 응답(이행숙, 1982)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각자의 자원을 상대방의 자원과 결합하여 가치있는 연합산물을 산출한다는 '생산적교환'의 속성에 비추어 신랑 신부는 혼수 품목 중 특히 신혼가구 성립 품목에서 상대방과 중복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주로 신랑이 집을 그리고 신부가 신혼살림을 마련하는 현행 혼수관행(김경희, 1983 ; 김모란, 1994)은 혼수품목에서의 중복방지 경향이 현실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혼수지출의 대부분을 신랑 신부의 부모가 부담하는 경향이므로 부모의 경제력과 혼수규모 간의 관련이 예상되며 경험적 연구결과들(김경희, 1983 ; 김모란, 1994 ; 박민자, 1991 ; 박숙자, 1991)도 이를 뒷바침 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가 주택비를 제외한 혼수에 대한 분석이어서 주택비를 포함할 때도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끝으로 결혼과정의 최종단계는 신혼여행의 종료와 함께 시작되는 '결혼생활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으로 출자한 자원들의 상호작용적인 결합으로 산출된 연합산물을 공동 소비하게 된다. 그런데 연합

8) 여기서 연합산물은 계층분화적 사회에서 신혼부부가 갖게되는 경쟁력 및 그 결과로서의 '생활의 질'에 해당될 것이다.

산물은 신랑 신부가 출자한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와 유관하므로 이들 자원은 이 단계에서의 연합산물의 한 지표인 결혼만족도와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생산적교환자원'은 보편적 결혼상황에 적용되는 설명틀일 뿐 '협동적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간의 거래를 미리 계약하는 전략적 결혼상황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표적집단에 대해서는 탐색적 접근만을 하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에 근거하여 본 [연구문제 1-4]에서 제시한 혼수가 '생산적교환자원'임을 입증키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및 직업은 자신의 혼수규모와 비례한다.
- 가설2. 신랑 및 신부의 혼수규모는 배우자의 혼수규모와 비례한다.
- 가설3. 혼수 중 신혼가구성립비 지출에서 신랑 신부간 차이가 있다.
- 가설4. 신랑 및 신부의 혼수규모는 신랑 및 신부 부모의 경제수준과 비례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일반집단의 모집단은 자료수집 시점인 94년도 8월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결혼기간 5년 미만인 남녀였고 모집단으로부터 집락표집법(cluster sampling) 및 전략적제보자표집법(stratagic informant sampling)을 병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집락표집에서는 부산시의 행정단위인 '동' 6833개를 표본틀(frame of sampling)로 하여 체계적 추출에 의해 80개의 '동'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집락내의 표본단위(sampling unit)인 결혼 5년 미만인 신혼가구에 대한 표본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반장 및 구멍가게 주인들을 전략적제보자로 활용하여 표

집하였다. 즉 전략적제보자들로부터 결혼 5년 미만의 신혼가구일 것이라고 추천받은 가정을 모두 방문하여 조사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남녀 각 5명씩\*(각 '동'당 10명) 총 800사례(남녀 각 400명)를 표집하였다. 본조사를 시행하기 약 2달전에 표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집설계에 따라 예비표집을 시행하였는데 이때는 총 6833개 '동'에서 18개 '동'을 표집하였고 표본단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제보자추출법이 효율적임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표적집단은 비확률적 표본설계 중 판단 표집법(judgement sampling)과 전략적제보자표집법(stratagic informant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즉 신랑의 직업이 의사, 판·검사, 교수 중 결혼 5년 미만인 신혼가구에 대해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원에게 탐문하여 표집하였는데 탐문과정에서 응답거절 사례가 많아 겨우 132부를 배부하여 107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신부로부터 48부, 신랑으로부터 24부, 총 72부를 표적집단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구조적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는데 질문지는 응답자의 성에 따라 신랑용과 신부용 두 종류였지만 질문내용은 동일하게 자신 및 배우자의 결혼교환자원, 혼수 그리고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1994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질문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일반집단의 경우 1994년 8월 9월 두 달에 걸쳐 시행되었고 표적집단은 1994년 10월에서 1994년 12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 2. 변인 측정

##### 1) 혼수

본 연구의 중요 변인인 혼수에는 결혼식비, 신혼

9) 남녀 조사대상자를 추출한 방법은 '동'내에서 최초로 방문한 가정에서 응답에 동의한 대상자의 성에 따라 결정하였다. 즉 최초방문 신혼가구에서 신부가 표집되었으면 다음 방문 신혼가구에서는 신랑을 표집하는 식이었다.



〈표 1〉 일반집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신랑	신부
결혼 년도	90년도	220(27.5)	
	91년도	141(17.6)	
	92년도	183(22.9)	
	93년도	170(21.2)	
	94년도	86(10.8)	
결혼 형태	전문중매인을 통해	48(6.0)	
	친척이나 집안어른의 소개로	172(21.5)	
	친구나 직장동료의 소개로 우연히	580(72.5)	
거주 형태	자기주택 소유	238(29.9)	
	전세	466(58.5)	
	전세+월세	86(10.8)	
	삭월세	7( 0.8)	
평균결혼 연령		29세	26세
직업	무직(또는 학생)	25( 3.1)	169(21.1)
	임시고용, 단순노무직(막노동, 미화원, 일용직 등)	11( 1.4)	15( 1.9)
	서비스직(판매원, 배달원 등)	54( 6.7)	85(10.6)
	숙련, 반숙련직, 기능직, 생산직	123(15.4)	62( 7.7)
	소규모 자영업(도소매업, 음식점 주인 등)	66( 8.3)	14( 1.8)
	일반회사 사무직(은행원 등)	233(29.1)	249(31.1)
	정부, 공공기관 사무직	87(10.9)	68( 8.5)
	일반전문기술직(회사나 관청의 연구원, 엔지니어, 교사 등)	140(17.5)	102(12.8)
	고위전문직, 정부의 관리직 공무원, 일반회사의 고급관리직	47( 5.9)	21( 2.6)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4( 1.8)	15( 1.9)
교육 수준	국민학교 졸업	3( 0.4)	1( 0.1)
	중학교 졸업	7( 0.9)	22( 2.7)
	고등학교 졸업	278(34.7)	360(45.0)
	전문대학 졸업	108(13.5)	151(18.9)
	대학교 졸업	376(47.0)	277(32.1)
	대학원 수료	28( 3.5)	9( 1.1)
결혼 당시 본인의 소득	없음	24( 3.0)	182(22.8)
	1- 25만원	5( 0.6)	13( 1.6)
	26- 50만원	43( 5.4)	115(14.4)
	51- 75만원	169(21.2)	246(30.8)
	76-100만원	267(33.5)	179(22.4)
	101-125만원	168(21.1)	35( 4.4)
	126-150만원	73( 9.1)	15( 1.9)
	151-175만원	25( 3.1)	7( 0.9)
	176-200만원	12( 1.5)	3( 0.4)
	201-250만원	9( 1.1)	1( 0.1)
	251-300만원	1( 0.1)	1( 0.1)
301만원이상	2( 0.3)	1( 0.1)	
부모 경제 수준	상	27( 3.4)	16( 2.0)
	중의 상	140(17.6)	134(16.8)
	중의 중	423(53.1)	480(60.2)
	중의 하	139(17.4)	132(16.5)
	하	68( 8.5)	36( 4.5)

〈표 2〉 표적집단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 분	N(%)	
		신랑	신부
결혼 년도	90년도	20(27.8)	
	91년도	13(18.1)	
	92년도	11(15.3)	
	93년도	12(16.7)	
	94년도	16(22.3)	
결혼 형태	전문중매인을 통해	20(27.8)	
	친척이나 집안어른의 소개로	14(19.4)	
	친구나 직장동료의 소개로 우연히	38(52.8)	
거주 형태	자가주택 소유	28(41.2)	
	전세	39(57.4)	
	전세+월세	1( 1.5)	
	삭월세	.	
평균결혼 연령		29세	26세
직업	무직(또는 학생)		25(35.2)
	숙련기능생산직, 소규모자영업+일반회사, 정부공공기관사무직		5( 7.0)
	일반전문기술직(연구, 프로그래머, 교사)		11(15.5)
	고위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예술가, 교수)	72(100)	30(42.3)
교육 수준	전문대학 졸업		1( 1.4)
	대학교 졸업	39(54.2)	47(65.3)
	대학원 수료	33(45.8)	24(33.3)
결혼 당시 본인의 소득	없음	3( 4.2)	25(34.7)
	1- 25만원	1( 1.4)	
	26- 50만원	4( 5.6)	6( 8.3)
	51- 75만원	18(25.0)	12(16.7)
	76-100만원	16(22.2)	18(25.0)
	101-125만원	10(13.9)	2( 2.8)
	126-150만원	3( 4.2)	4( 5.6)
	151-175만원	2( 2.8)	1( 1.4)
	176-200만원	5( 6.9)	
	201-250만원	4( 5.6)	1( 1.4)
	251-300만원	1( 1.4)	2( 2.8)
301만원이상	5( 6.9)	1( 1.4)	
부모 경제 수준	하	3( 4.2)	1( 1.4)
	중의 하	15(20.8)	5( 6.9)
	중의 중	32(44.5)	26(36.1)
	중의 상	16(22.2)	30(41.7)
	상	6( 8.3)	10(13.9)

여행비, 배우자예물비, 가족예물비, 신혼살림비, 주택비, 기타비용 등 총 7개 항목이 포함되며<sup>10)</sup>, 「가설3」에서 제시된 변인 '신혼가구성립비'는 혼수 중 신혼살림비와 주택비로 구성된다. 혼수 항목 중 기타비용은 제시된 어느 항목에도 포함시킬 수 없으나 결혼과 관련되어 지불된 품목을 자유기술식으로 기입한 뒤 금액을 쓰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혼수의 측정은 이들 7개 항목 중 각항목에 대한 천원단위의 응답금액의 합산치로 구하였다. 이때 결혼년도에 따라 그 실질가치가 다른 혼수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즉 '90년도 부터 '94년도 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중 '93년도<sup>11)</sup> 소비자물가지수(121.7)를 100으로 설정하여 구한 환산치<sup>12)</sup>를 해당년도의 혼수금액에 곱하여 환산액을 구한 후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결혼교환자원

본 연구에서는 결혼교환자원을 '배우자선택시 교환자원으로 고려되는 개인적, 가족적 자원'이라 정의하며 이에선 신랑 및 신부의 결혼당시 교육수준, 직업 및 신체적 매력, 장래성, 결혼욕구, 부모의 경제수준 등 6개 변인<sup>13)</sup>이 포함된다. 먼저 「직업」은 신랑 신부의 결혼당시 직업을 대상으로 하여 무직에서 고

위 전문직 까지 1점 부터 9점을 배정한 9점척도로 그리고 「교육수준」은 국민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수료까지의 6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적매력」은 얼굴과 신체에 대해 '거의 매력없다' 에서 '아주 매력적이다' 까지 7점 측정치를 합산하여 구했으므로, 점수범위는 2-14점 이다. 「장래성」은 결혼당시 자신과 배우자의 장래성에 대해 지각한 정도에 대해 거의 없음에서 아주 많음까지 7점의 응답범주에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고, 「결혼욕구」는 현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에 대하여 아주 적게 부터 아주 많이 까지 7점의 응답범주를 주어 측정하였으며, 「부모의 경제수준」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하, 중의 하, 중, 중의 상 및 상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Schumm, Nichols, Schectman 및 Grigsby(1983)가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 배우자,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세 문항에 대하여 극히 불만족에서 극히 만족 까지 7점의 응답 범주로 측정케 된 것이다. 점수 범위는 3-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을 만

10) 본 연구에서는 혼수에 약혼식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거주지가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결혼관행의 특성은 약혼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11) '94년이 최종연도이나 자료수집이 끝난 시점인 '94년도 상반기엔 소비자물가지수가 '93년도 까지 제시되어 있어 이를 기준연도로 삼았다.

12) 각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물가년보, 1994) 및 환산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93년도 기준 환산치
1990	100.0	1.217
1991	109.3	1.113
1992	116.1	1.048
1993	121.7	1.000
1994.6	129.3	0.952

\* 즉 '90년도 100원은 '93년도에 121.7원의 가치를 지니므로 '90년도 혼수에 환산치 1.217을 곱한 환산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1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중 소득을 결혼교환자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직업지위 및 장래성 등과 관련성이 낮아 결혼자원으로서 가치가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시간강사나 병원 인턴 및 대학원생의 경우 소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혼대상자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족스럽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신랑 집단  $\alpha = .93$ 이고 신부집단  $\alpha = .92$ 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일반집단의 혼수실태 및 관련변인과의 관계

###### 1-1. 혼수 실태에 관한 기술적 분석

신랑과 신부의 혼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신랑과 신부 모두 혼수의 명목비용<sup>14)</sup>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수를 93년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하여 분석해 본 결과(<표 3> 참고) 연도별로 혼수의 유의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0)가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혼수(주택비 제외)를 측정 시점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 결과 '85년도 20.5배 에서 '90년도에 18.8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본 조사 결과와 연결하여 해석한다면 혼수는 최근 10년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랑과 신부의 분담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결혼식 비용(5 : 5)은 신랑과 신부간 차이가 없고 신혼여행비(5.6 : 4.4)와 배우자 예물(5.3 : 4.7)은 신랑이 약간 더 부담하며, 주택비용(8 : 2)은 신랑이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예물(4 : 6) 및 기

타비용(4 : 6)은 신부가 더 많이 부담하고, 신혼살림비(3 : 7)는 신부가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총액의 평균에서 신랑은 2417만원, 신부는 1697만원으로 약 6 대 4의 비율로 신랑의 혼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2. 결혼교환자원의 혼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신랑 및 신부의 혼수에 대한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 1-2]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을 독립변인<sup>15)</sup>으로 두고 신랑 및 신부의 혼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4> 및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의해 신랑혼수에 미치는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신랑부모의 경제수준( $\beta = .22, p < .0001$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beta = .12, p < .01$ ), 신부부모의 경제수준( $\beta = .11, p < .01$ ) 순으로 영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랑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부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랑혼수가 많아졌다. 이들 결혼교환자원 변인들은 신랑혼수 총분산의 14%를 설명하고 있다( $R^2 = .14, p < .001$ ).

다음으로 <표 5>에 의해 신부혼수에 미치는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신부부모

14) 연도별 신랑 신부 혼수의 명목비용

(단위 : 만원)

	신랑	신부
90년도	1706.8	1341.6
91년도	2142.8	1464.6
92년도	2390.1	1605.9
93년도	2621.1	1838.0
94년도	2885.5	1990.0

15) 신부직업은 혼수와 직선적인 관계(무직일 때 혼수가 가장 많고, 전문직일 때 그 다음이며, 일 반 사무직, 단순노동직 순으로 혼수가 적어졌다)가 아니었으므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신랑과 신부 의 교육수준이  $r = .72$ 로서 다공선성의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의 교육수준을 합하여 신랑 및 신부 교육수준 변인으로 하였다.

〈표 3〉 연도별 혼수지출 규모 및 항목별 분담내역

단위 : 만원 (N=800)

항목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		배우자예물		가족예물		신혼살림비		주택비용		기 타		총 액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신랑	신부
90	200.8	205.3	86.5	67.6	240.4	201.5	1,650	272.4	156.6	477.6	1236.5	398.9	5.7	7.2	2072.5	1642.1
91	174.9	179.0	91.7	68.1	206.1	179.1	2,097	272.7	261.7	529.9	1431.0	339.9	14.3	8.8	2385.0	1563.3
92	176.9	165.7	95.5	78.2	226.7	192.2	2,155	309.9	186.2	588.0	1585.5	298.9	6.3	4.1	2504.9	1683.0
93	154.4	159.8	96.3	72.4	226.8	207.8	2,184	301.3	236.2	584.8	1702.9	483.3	6.5	38.2	2621.1	1838.0
94	178.8	178.4	111.5	91.2	232.7	230.2	2,181	351.4	209.3	583.8	1524.0	425.1	6.9	11.6	2747.0	1852.5
총 평균	178.4 (50)	178.9 (50)	94.3 (56)	73.7 (44)	227.4 (53)	199.8 (47)	201.7 (41)	295.8 (59)	204.7 (27)	546.7 (73)	1481.9 (79)	386.2 (21)	8.8 (39)	13.8 (61)	2417.0 (59)	1697.3 (41)

① ( )는 항목별 신랑과 신부의 혼수분담 정도를 나타내는 %임.

② '93년도 기준 물가지수로 환산한 금액임

〈표 4〉 신랑혼수에 대한 신랑 신부 결혼교환자원의 상대적 영향력

(N=800)

변 인	B	Beta	R <sup>2</sup>
신랑부모 경제수준	506.60	.22**	.14**
신랑의 직업	.44	.00	
신랑의 신체적 매력	37.01	.04	
신랑의 장래성	49.20	.03	
신랑의 결혼욕구	-44.03	-.02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133.12	.12*	
신부부모 경제수준	302.58	.11*	
신부의 신체적 매력	50.29	.05	
신부의 장래성	-110.12	-.07	
신부의 결혼욕구	68.91	.04	
(constant)	-1734.61		

\* P<.01 \*\* P<.0001

의 경제수준( $\beta = .23, p < .0001$ ),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beta = .14, p < .001$ )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부부모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부혼수가 많아졌다. 이들 결혼교환자원 변인들은 신부혼수의 총분산 중 14%( $R^2 = .14, p < .001$ )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1-3.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신랑 및 신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 1-3]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를 독립변인으로 두고 신랑 및 신부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6> 및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6>에 의해 신랑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신부의 결혼욕구( $\beta = .20, p < .001$ ), 신랑의 결혼욕구( $\beta = .14, p < .05$ ), 신부의 매력( $\beta = .13, p < .05$ ), 신랑 및 신부 교육수준( $\beta = .13, p < .05$ ) 순으로 나타

〈표 5〉 신부혼수에 대한 신랑 신부 결혼교환자원의 상대적 영향력

(N=800)

변 인	B	Beta	R <sup>2</sup>
신랑부모 경제수준	7.41	.01	.14**
신랑의 직업	21.07	.03	
신랑의 신체적 매력	16.16	.03	
신랑의 장래성	68.69	.06	
신랑의 결혼욕구	-60.15	-.06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91.51	.14*	
신부부모 경제수준	366.98	.23**	
신부의 신체적 매력	13.08	.02	
신부의 장래성	5.23	.01	
신부의 결혼욕구	24.66	.03	
(constant)	-713.64		

\* P&lt;.001 \*\* P&lt;.0001

〈표 6〉 신랑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의 상대적 영향력

(N=800)

변 인	B	Beta	R <sup>2</sup>
신랑부모 경제수준	.03	.01	.27***
신랑의 직업	.05	.03	
신랑의 신체적 매력	.12	.08	
신랑의 장래성	.08	.03	
신랑의 결혼욕구	.38	.14*	
신랑혼수	-.00	-.09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22	.13*	
신부부모 경제수준	.14	.03	
신부의 신체적 매력	.19	.13*	
신부의 장래성	.09	.04	
신부의 결혼욕구	.51	.20**	
신부혼수	.00	.03	
(constant)	4.77		

\* P&lt;.05 \*\* P&lt;.001 \*\*\* P&lt;.0001

났다. 즉 신부의 결혼욕구가 높을수록, 신랑의 결혼욕구가 높을수록, 신부가 매력적일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랑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들 변인이 신랑의 결혼만족도 총분산의 27%를 설명하고 있다( $R^2 = .27$ ,  $p < .001$ ).

다음으로 〈표 7〉에 의해 신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신부의 결혼욕구( $\beta = .24$ ,  $p < .0001$ ), 신랑의 매력( $\beta = .15$ ,  $p < .001$ ),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beta = .14$ ,  $p < .001$ ), 신랑의 결혼욕구( $\beta = .12$ ,  $p < .05$ ), 신랑혼수( $\beta = .12$ ,  $p < .05$ ), 신랑의 장래성( $\beta = .11$ ,  $p < .05$ )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부의 결혼욕구가 높을수록, 신랑이 매력적일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랑의 결혼욕구가 높을수록, 신랑혼수

〈표 7〉 신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 및 혼수의 상대적 영향력

(N=800)

변인	B	Beta	R <sup>2</sup>
신랑부모 경제수준	.17	.05	.35***
신랑의 직업	-.01	-.00	
신랑의 신체적 매력	.21	.15**	
신랑의 장래성	.29	.11*	
신랑의 결혼욕구	.31	.12*	
신랑혼수	.00	.12*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22	.14**	
신부부모 경제수준	.02	.01	
신부의 신체적 매력	-.05	-.03	
신부의 장래성	.15	.06	
신부의 결혼욕구	.48	.24***	
신부혼수	.00	.00	
(constant)	4.24		

\* P<.05 \*\* P<.001 \*\*\* P<.0001

가 많을수록, 신랑의 장래성이 있을수록 신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들 변인은 신부의 결혼만족도 총분산의 35%를 설명하고 있다(R<sup>2</sup>=.35, p<.0001).

1-4. 혼수의 사회적 의미 : 생산적 교환자원으로서의 혼수

‘혼수는 생산적 교환자원인가?’라는 연구문제 1-4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에 의해 설정된 4개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및 직업은 자신의 혼수규모와 비례한다〉라는 가설 1을 검증키 위해 신랑 및 신부에 대해 교육수준 및 직업과 혼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혼수간의 관련성이 신랑(r=.19, p<.0001) 신부(r=.26, p<.0001) 모두에게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그러나 직업

과 혼수간의 관련성에서는 신랑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r=.11, p<.001) 가설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즉 신랑은 교육수준 및 직업등급이 높을수록 혼수지출을 많이하고 신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수규모가 크다.

다음으로 〈신랑 및 신부의 혼수규모는 배우자의 혼수규모와 비례한다〉는 가설2는 신랑혼수와 신부혼수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상관계수 r=.32(p<.0001)로 신랑 또는 신부혼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혼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긍정되었다.

가설 3 〈혼수 중 신혼가구성립비 지출에서 신랑 신부간 차이가 있다〉를 검증키 위해 신혼가구성립비에 해당되는 항목 신혼살림비 및 주택비에 대하여 신랑 신부간 t-test를 하였다. 검증결과인 〈표 4〉에 의하면 신혼살림비에서 신부(546만원)는 신랑(204만원)보다 약 2.7배 더 많이 지출하는 반면 주택비에

16)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직업 및 부모의 경제수준과 혼수와의 관련성은 연구문제 1-2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연구문제 1-2는 탐색적인 목적에서 결혼교환자원들의 혼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한 것이므로 beta값은 여타 결혼교환자원들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따라서 여타변인들과 무관하게 두 변인간의 관계만을 고려한 본 가설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으나 본 가설검증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8〉 신혼가구 성립비의 신랑 신부간 지출차에  
관한 비교표

(N=800)

		mean	SD	T	P
살림비	신랑	204.7	357.6	-18.0	.0001
	신부	546.7	439.3		
주거비	신랑	1481.9	1652.9	17.2	.0001
	신부	386.2	826.3		

서 신랑(1481만원)은 신부(386만원)에 비해 4배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도 긍정되었다. 〈표 3〉을 보면 신랑혼수 중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주택비이고 신부혼수 중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신혼살림비이다. 이는 혼수에서 신부는 신혼살림 장만, 신랑은 주택장만의 경향을 보고한 김경희(1983) 및 김모란(1994)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신랑 및 신부의 혼수규모는 신랑 및 신부 부모의 경제수준과 비례한다〉는 가설 4는 신랑혼수와 신랑 부모 경제수준( $r=.31, p<.0001$ ) 및 신부혼수와 신

부부모 경제수준( $r=.31, p<.0001$ )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랑 및 신부의 혼수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긍정되었다. 이렇게 4개의 가설이 대부분 긍정됨에 따라 혼수가 결혼과정에서 '생산적교환자원'으로 기능함이 입증되었다.

## 2. 표적집단의 혼수실태

### 2-1.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의 신랑 신부간 혼수 항

〈표 9〉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의 신랑·신부간 항목별 혼수의 차이

단위:만원(N 표적집단=72, 일반집단=800)

항목		신랑	신부	T값	신랑/신부
결혼식비용	표적집단	244.1	261.4	-.28	0.93배
	일반집단	178.4	178.9	-.10	1.00배
신혼여행비	표적집단	105.6	69.0	-3.84***	1.53배
	일반집단	94.3	73.7	6.07***	1.28배
배우자예물	표적집단	661.8	404.0	3.54***	1.64배
	일반집단	223.3	199.8	4.51***	1.12배
가족예물	표적집단	288.2	1357.3	-3.94***	0.21배
	일반집단	201.7	295.8	-11.65***	0.68배
신혼살림비	표적집단	222.7	1106.5	-18.04***	0.20배
	일반집단	204.7	546.7	-4.76***	0.37배
주택비용	표적집단	2183.7	1649.2	1.70	1.32배
	일반집단	1481.9	386.2	17.17***	3.84배
기 타	표적집단	198.4	558.5	.	0.36배
	일반집단	8.8	13.8	.	0.64배
총 액	표적집단	2925.1	5079.8	-1.21	0.58배
	일반집단	2417.0	1697.3	10.05***	1.42배

\* P<.05 \*\* P<.001 \*\*\* P<.0001



목별 분담실태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의 신랑 신부간 혼수 항목별 비교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 의하면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모두에서 결혼식비용은 신랑·신부가 비등하게 부담하며, 신혼여행비 및 배우자예물은 신랑이 더 많이 지출하고, 가족예물 및 신혼살림비는 신부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택비용에서 일반집단은 신랑(1481만9천원)이 신부(386만2천원)보다 유의하게 많이 지출한 반면에 표적집단에서는 신랑(2183만7천원)·신부(1649만2천원)간에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7)</sup>. 총액의 경우 일반집단은 신랑이 신부 보다 약 1.4배 더 많이 부담하나 표적집단은 신부가 신랑보다 약 1.7배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적집단의 혼수 부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하는데 이는 사례수가 적는데 비해 분산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 신랑과 신부의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 혼수 항목별 지출실태

신랑 신부 별 표적집단과 일반집단간 혼수 항목별 비교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 의하면 먼저 결혼식 비용 및 신혼여행비에서 표적집단의 신랑 신부가 일반집단의 신랑신부보다 약간 많이 지출하나(신부의 신혼여행비 제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한편 배우자예물 및 가족예물은 신랑·신부 모두 표적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이 지출하는데 특히 배우자예물에서 표적집단신랑(661만8천원)은 일반집단신랑(223만3천원)에 비해 약 3배의 지출을 하고 가족예물에서 표적집단신부

<표 10> 표적집단과 일반집단간 항목별 혼수의 차이비교

단위 : 만원 (N 표적집단=72, 일반집단=800)

항목		표적집단	일반집단	T값	표적집단/일반집단
결혼식비용	신랑	244.1	178.4	.88	1.37배
	신부	261.4	178.9	1.07	1.46배
신혼여행비	신랑	105.6	94.3	1.32	1.12배
	신부	69.0	73.7	-.95	0.94배
배우자예물	신랑	661.8	223.3	4.28***	2.96배
	신부	404.0	299.8	5.50***	1.35배
가족예물	신랑	288.2	201.7	2.22*	1.43배
	신부	1357.3	295.8	3.99***	4.59배
신혼살림비	신랑	222.7	204.7	.13	1.09배
	신부	1106.5	546.7	3.22**	2.02배
주택비용	신랑	2183.7	1481.9	1.90	1.47배
	신부	1649.2	386.2	5.31***	4.27배
기 타	신랑	198.4	8.8		22.5배
	신부	556.5	13.8		40.5배
총 액	신랑	2925.1	2417.0	2.69**	1.21배
	신부	5079.8	1697.3	5.26***	2.99배

\* P<.05 \*\* P<.001 \*\*\* P<.0001

17) 분석결과 기타항목의 t값이 산출되지 않아 응답빈도를 내어 본 결과 신랑 신부 모두 표적집단은 8사례 그리고 일반 집단은 23사례만이 응답을 한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요구되는 최소빈도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1357만3천원)는 일반집단신부(295만8천원)에 비해 약 4.6배의 지출을 하고 있다. 신혼살림비 및 주택비용에서 신랑 신부 모두 표적집단이 일반집단 보다 많이 지출하나 신랑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고 신부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표적집단신부는 일반집단신부에 비해 신혼살림비는 약 2배 주택비는 약 4배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 총액으로 볼때 표적집단신랑(2925만1천원)은 일반집단신랑(2417만원)보다 약 1.2배 더 지출 하는데 비해 표적집단신부(5079만8천원)는 일반집단신부(1697만3천원)보다 약 3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주된 혼수문제라고 지적되는, 신랑에 비해 과중한 신부의 혼수부담 문제를 일부 특정계층의 문제로 보고 사회전체의 혼수실태와는 분리하여 연구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추출된 일반집단과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전체에 있어서의 혼수실태 및 혼수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고 일부 계층에서의 혼수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먼저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연도별 혼수실태, 혼수와 결혼교환자원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 설명적 목적에서 Emerson(1969, 1972)의 교환망 이론을 적용하여 혼수의 사회적 기능이 '생산적교환자원'임을 입증하며 다음으로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신랑 신부의 혼수실태를 일반집단과 비교함으로써 혼수문제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혼수란 '한쌍의 남녀간의 결혼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총 비용'을 의미하며, 결혼교환자원은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 직업, 매력, 장래성, 결혼욕구, 부모의 경제수준 등 6개 요인을 포함하는 '배우자선택시 교환자원으로 고려되는 개인적, 가족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두개의 주된 연구문제 및 네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부산시에 거주하는 결혼기간 5년 미만의 남녀 800명(일반집단) 및 결혼 5년미만의 고위전문직 신랑을 중심으로 추출한

남녀 72명(표적집단)으로 부터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일반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신랑 및 신부는 혼수항목에 따라 혼수지출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총 혼수 평균은 신랑이 2417만원, 신부가 1697만원으로 신랑이 신부보다 약 1.4배 더 많이 지출한다. 신랑이 신부 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혼수 항목은 신혼여행비, 배우자 예물 및 주택비이며 신부가 신랑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혼수 항목은 가족예물, 기타비용 및 신혼살림비이다. 신랑의 주 지출항목은 주택비로 총 신랑혼수의 61.3%를 차지하며 신부의 주 지출항목은 신혼살림비로 총 신부혼수의 32.2%에 해당된다.

둘째, 신랑의 혼수규모는 신랑부모가 경제력이 있을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부부모가 경제력이 있을수록 커진다. 또한 신부의 혼수규모는 신부부모가 경제력이 있을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커진다.

셋째, 신랑의 결혼만족도는 신부가 그 결혼을 원했을수록, 신랑이 그 결혼을 원했을수록, 신부가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을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또한 신부의 결혼만족도는 신부가 그 결혼을 원했을수록, 신랑이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을수록,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랑이 그 결혼을 원했을수록, 신랑혼수가 많을수록, 신랑 장래성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넷째, 혼수규모는 결혼당사자의 교육수준, 직업 및 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 혼수마련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신랑 신부간 지출규모가 유사하고 그 지출항목에서 중복되지 않는 경향이 입증되었으므로 혼수는 '생산적교환자원'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다음으로 표적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신랑 신부 간 혼수 항목별 분담실태에서 표적집단과 일반집단간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비 뿐으로, 일반집단은 신랑(1481만9천원)이 신부(386만2천원) 보다 유의하게 많은 주택비를 지출하나 표적집단은 신랑 신부가 주택비를 비슷하게 부담한다. 혼수 총액은 일반집단의 신랑이 신부 보다 유의하게

많은 지출하는데 비해 표적집단의 신랑 신부는 비슷하게 부담한다.

둘째,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 혼수 항목별 지출 실태에서 배우자예물은 표적집단신랑(661만8천원)이 일반집단신랑(223만3천원)에 비해 약 3배, 그리고 가족예물은 표적집단신부(1357만3천원)가 일반집단신부(295만8천원)에 비해 약 4.6배 유의하게 더 많이 지출한다. 또한 신혼살림비는 표적집단신부가 일반집단신부 보다 약 2배, 주택비는 약 4배 유의하게 더 많이 지출하고 혼수총액은 표적집단신랑(2925만1천원)이 일반집단신랑(2417만원)의 약 1.2배 그리고 표적집단신부(5079만8천원)는 일반집단신부(1697만3천원)의 약 3배 유의하게 더 지출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주목되는 것은 신부측에 불리한 과중부담이라는 혼수문제는 단지 사회의 일부 특정집단에만 존재하는 문제이며 사회전체를 두고 볼 때는 혼수가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혼수문제가 사회 일부계층의 문제임은 학자들(박민자, 1991; 박숙자, 1991; 윤형숙, 1991; 장은영, 1990)도 지적하였지만 전체 사회로 부터 추출한 일반집단과 문제가 되는 특정집단에 대한 2원적인 접근을 시도한 실증적 자료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확인되지는 못했었다.

사회 전체로 볼 때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혼수관행은 신랑이 신부보다 다소 많이(약 1.4배) 지출하는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모란(1994), 박숙자(1991) 및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3)등이 제시한 자료들과도 부합되는 결과이다.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혼수 항목별 분석 및 김경희(1983), 김모란(1994)등의 보고는 신랑혼수가 신부혼수보다 큰 주된 이유가 혼수 주 지출항목에서의 신랑 신부 간 차이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신랑의 주 지출항목은 주택비인데 이는 신부의 주 지출항목인 신혼살림비를 상회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물론 주택

마련이 신랑측 능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신부도 일부 기여하며 신혼살림비를 신랑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듯하지만, 주택비와 신혼살림비를 합산한 값에 대한 신랑(1686만 6천원) 신부(932만9천원)간 비교에서도 신랑이 신부보다 약1.8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수 주부담 내역에서의 차이가 신랑측 혼수가 많은 원인임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랑혼수 중 주택비는 혼수총액이 어떠한든 비슷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모란(1994),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3) 및 본 연구의 자료를 비교하면<sup>18)</sup> 이러한 현상이 분명해진다. 즉 김모란(1994),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3) 및 본 자료의 신랑혼수는 각각 6024만원, 3830만원 및 2417만원으로 금액상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 혼수에서 주택비(각각 4271만원, 2785만원 및 936만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0.89%, 72.72% 및 81.3%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부가 아닌 신랑이 주택비를 주로 부담하는 가능한 이유는 조선조 말기의 혼례전통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숙(1989)은 조선조 말기 혼례의 핵심을 親迎禮에서 찾는데 이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식을 치른 후 신부와 함께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신랑측이 신혼부부의 거처를 제공하던 夫居制의 전통은, 신혼부부가 독립된 거처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新居制가 일반화 되는 과정에서 '신랑측의 주택마련'이라는 방식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박민자(1991)의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년대 전반 까지 신랑측이 전세비 이상의 주택비를 제공한 비율이 50% 정도였으나 80년대 후반들어 73.9%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 新居制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는 경향을 알수있다. 사실 주택마련은 신랑에게 상당한 심적 물적 부담이 되며(안정남, 1991; 윤형숙, 1991) 특히 부모가 혼수의 책임을 주로 지는 한국의 경우

18) 김모란(1994)의 표본은 서울의 중상층주부로 혼수총액은 '85년 부터 '92년 까지의 명목금액의 평균치이며,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표본은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 거주하는 '93년 현재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로 혼수총액은 '93년도 實價價이고, 본 연구의 혼수총액은 '90년 부터 '94년 까지의 명목금액을 '93년도 실질가로 표준화한 액수이므로 비교된 혼수를 이해할 때 이점을 감안할 것이 요구된다.

혼수는 일종의 재산상속적 기능도 겸해서 그 규모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전체로써의 혼수관행은 혼수의 기능을 '생산적교환자원'이라고 설명하게 허락한다. 즉 혼수는 결혼하기로 합의하여 '협동적관계'를 형성한 신혼부부가 연합산물인 결혼생활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동 출자하는 자원인 것이다. Emerson(1969)에 의하면 행위자 각각의 자원은 독립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고 상대방의 자원과 결합할 때 가치있는 연합산물이 산출될 수 있다. 이를 혼수 중 신혼가구성립비에 대입시키면 신랑의 주택과 신부의 신혼살림이 독립적으로는 쓸모가 적지만 두 항목이 결합됨으로써 신혼생활을 위한 조건을 산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생산적 교환상황'에서 출자되는 개인적 자원은 출자자의 능력과 관련되므로 돈 있고 배운 사람들이 과다혼수의 주범이라는 박민자(1991)의 진단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단 및 경제적 여유로 많은 교육을 받은 집단이 더 많은 출자를 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더 적게한다는 재해석이 가능해진다. 현대의 新居制 관행에서는 신부도 신랑 예물이나 신랑가족 예물 외에 일체의 신혼살림을 마련해야 하므로 과거 시집에 婚入하던 시기보다 전체적으로 혼수규모가 커질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품목수 및 액수를 과거와 비교하여 혼수의 호화경향을 규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농업경제 구조였던 조선조 말기 일반가정에서 혼수로 인해 가졌던 부담이 국제교역규모 세계12위인 현재의 일반가정에서 혼수 때문에 겪는 부담보다 크게 가벼웠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집단에서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들 중 어떤 요인들이 어떤 순서로 혼수규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적 목적에서 분석한 결과, 신랑 신부 모두 부모의 경제수준이 가장 영향적이며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두번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혼수가 '생산적교환자원'임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혼수가 가정의 경제형편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결혼이 가족적 행사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부모의 생활수준 및 신랑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혼수품목수가 증가한다는 박민자(1991)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신랑 신부의 결혼교환자원들 및 혼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신랑 신부 모두에게 신부의 결혼욕구가 가장 영향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이는 신부의 높은 결혼욕구가 가정생활을 능동적으로 이끌게 하고 나아가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된다. 신랑의 경우 자신의 결혼욕구가 두번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신부의 결혼욕구가 양측에 첫번째 영향요인이라는 결과와 더불어 원하는 대상과 결혼하는 것이 결혼후의 만족스런 적응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외에 신랑 신부의 교육수준 및 상대방의 신체적 매력 등도 양측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상대방이 매력적일수록 신랑과 신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이경애(1993)의 연구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명자, 1977; 이정연, 1987; 최연실, 198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신체적 매력은 결혼결정단계와 결혼생활단계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생활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획득케 하므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신부의 혼수는 신랑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신랑의 혼수 및 장래성은 신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에 불리한 영향이 올라봐 많은 혼수를 해야겠다는(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일반적 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신랑혼수의 주지출항목이 주택비임을 감안하면 신랑혼수가 많다는 것은 안정된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신부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혼은 지속적 관계이므로 신랑의 현재 상태보다 앞으로의 가능성 즉 장래성은 신혼가정의 장래에 희망적 기대를 갖게함으로써 신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요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혼수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대한 조사 결과 신부측에 불리한 과중 부담이라는 문제와 함께 소위 말하는 호화혼수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먼저 신부의 과중한 혼수부담 경향은 일반집단에서는 신랑이 신부보다 약 1.4

배 더 지출하는데 반해 표적집단에서는 신부가 신랑보다 약 1.7배 더 지출하는 현상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주 부담 혼수 항목에 있어 신랑은 일반집단과 마찬가지로 주택비였지만 표적집단 신부는 일반집단 신부의 신혼살림비와 달리 주택비(1649만 2천원), 가족예물비(예단=1357만3천원) 및 신혼살림비(1106만5천원)를 비등하게 많이 지출하여 표적집단 신부의 혼수지출 양상이 일반집단과 매우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호화혼수 경향 역시 표적집단 부부와(8004만9천원) 일반집단 부부(4114만 3천원)간의 유의한 혼수규모 차이로 입증되었는데, 표적집단신랑이 일반집단 신랑과 비슷한 혼수 지출을 하는데(약 1.2배) 비해 신부는 3배나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계층에서의 혼수문제가 일부 보고(김모란, 1994; 이광자, 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3)와 같이 신부측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호화혼수에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광자(1990)는 호화혼수가 주로 좋은 조건의 신랑에게 시집가려는 신부에 의해 주도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좋은조건이란 장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랑의 유망한 직업이라고 학자들(박민자, 1991; 안정남, 1991, 윤형숙, 1991)은 주장한다. 박숙자(1991)는 이와 같이 신분상승 보장의 댓가로 상응하는 물질적 댓가를 치르는 결혼을 정략결혼이라고 규정하는데 정략결혼에서는 배우자 탐색단계에서 중매인을 통해 거래하고 싶은 자원들을 미리 제안하므로 '협동적관계'를 형성(결혼 결정)한 후 출자되는 일반 집단의 혼수와 그 성격이 다르다. 김모란(1994)은 신부의 혼수가 신랑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대한 물질적 댓가라는 점을 들어 '신랑값'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본 표적집단 신랑이 유망직종 집단임을 감안할 때 특수계층 신부의 혼수를 '신랑값'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분석 결과를 학자들의 설명과 결부시킬 때 특수계층에서 발견되는 혼수문제의 원인을 신부 및 그 가족의 사회적 신분상승 욕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을 신분상승 또는 신분보장의 기회로 이용할 의도가 있으며 신랑의 신분보장 능력에 대하여 재화로 댓가를 치를 능력을 보유한 신부(또는 그가족) 및 이러한 신부의 요구에

응하는 대신 물질적 보장을 받고자 하는 신랑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혼수문제의 유발자인 셈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점을 감안한 해석이 요구된다. 즉 표본을 부산지역에 한정하여 추출하였으므로 자료에 지역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표적집단의 경우 대상자의 회소성으로 인해 확률추출을 하지 못했으므로 표본편파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표적집단의 표본크기가 작아 보다 정교한 분석을 못한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 【참 고 문 헌】

- 1) 혼수비지출형태 달라지고 있다, 「국민경제리뷰」, 국민은행경제연구소, 1994.
- 2) 김경희, 한국 도시가족의 혼인비용지출현황에 관한 논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3) 김모란,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4) 김용숙, 1989.
- 5) 박민자, 도시 중간 계층의 혼인거래에 관한 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이 효재 외 지음, 서울:또 하나의 문화, 1991: 147-176.
- 6) 박숙자, 도시저소득층의 혼인 양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이 효재 외 지음, 서울:또 하나의 문화, 1991: 75-116.
- 7) 박혜인, 한국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이 효재 외 지음, 서울:또 하나의 문화, 1991: 17-73.
- 8)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 9) 윤형숙, 서울근교농촌의 경제와 결혼-k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1.
- 10) 이광자, 좀더 가난한 마음을, 조선일보, 21240호, 1990.
- 11) 이행숙,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비지출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12)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1983.
- 13) 이효재, 가족의 민주화와 혼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혼인」: 이 효재 외 지음,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1991 : 9-16.
- 14) 정재영, 호화혼수, 「신동아」, 1990. 6.
- 15) 장은영, 도시 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6)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결혼비용실태 및 의식조사, 1990.
- 17)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결혼비용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3.
- 18) 전경수 역, Roger, M. K. 저, 「현대문화인류학」, 서울 : 현음사, 1993.
- 19)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미시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 교문사, 1991.
- 20) 한국소비자보호원, 혼수실태조사 결과, 1990.
- 21) 한국어대사전, 현문사, 1976.
- 22) 홍길희, 자원에 따른 부부권력에 관한 연구, 「신홍실업전문대 논문집」, 제10권, 1987 : 743-756.
- 22) Blau, P. 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 John Wiley, 1964.
- 23) Blood, R.O, Jr., & Donald, M. W., 「Husbands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Macmillan, 1960.
- 24) Cook.K.C., Emerson's Contributions to Social Exchange Theory, 「Social Exchange Theory」, Ed. K.S. Cook. Sage Pub, 1987 : 209-222.
- 25) Ember, C. R. & Ember, M., 「Cultural Anthropology(eds.)」, New Jersey : Prentice Hall, 1993.
- 26) Emerson, R.M., Operant psychology and exchange theory, In R. Burgess and D.Bushell(eds.), 「Behavioral Soci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 379-405.
- 27) Emerson, R.M., Exchange theory, part II : Exchange relations and networks. In Berger, J., Zelditch, M. & Anderson, B.(eds.), 「Sociological Theories in Progress 2」, Boston : Houghton-Mifflin, 1972 : 58-87.
- 28) Emerson. R. M.,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76 : 335-362.
- 29) Emerson, 「Exchange theory, part I : A psychological basis for social exchange, Progress2」, Boston : Houghton-Mifflin, 1972a.
- 30) Emerson. R. M., & Cook, K. S., Power, equity & commitment in exchang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1978 : 721-739.
- 31) Goodenough, W.H., Description and Comparison in Cultural Anthropology, Lewis Henry morgan Lecture, 1968,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0.
- 32) Gough, E.K., The Nayars and the Definition of Marriag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959 : 23-24.
- 33) Homans,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2nd.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1.
- 34) Stolte, J.F., Legitimacy, Justice, and Procreative Exchange, In Karen, S. C. 「social Exchange Theory」, Sage Publication Inc, 1987 : 190-208.